

2017년 8월 13일 “찾아오신 예수님(37) 세상을 이기신 주”(요 16:31-33)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어떤 계기로 갖게 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아래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약을 원한다면 기존의 자기의 관점의 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었다’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1]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역행하여 오늘 본문까지 보면(약 하루) 약하신 모습은 일관적입니다. 그분을 십자가로 끌고 갔던 로마 병사들에게 모멸과 치욕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우 수동적이셨고,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도 무기력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식사 후 발 씻기심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13-16 장) 속에서도 강력한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고,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나갈 때에도,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라 말씀하면서도, 사람과 상황을 장악하고 조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긴 고별 대화를 마치고 마감하실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2]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헬. 코스모스(우주)) = 하나님께 반항하는 적대 세력을 상징. 이는 유대인도, 로마인도 아니었음. “이기었다” = 신약에서 사용한 28 회 모두 세상을 장악했던 사탄을 정복했다는 뜻으로 사용됨.

사탄은 세상을 거짓으로 장악했습니다. 창 3 장 이후로 인류가 믿는 거짓은 ‘나의 성공은 하나님처럼 되어 삶의 자원을 남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처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권력과 재물과 지위와 지식과 외모와 은사까지 포함합니다. 이 결과 세상에는 매우 복잡한 힘의 논리와 결과들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에 대한 열망은 놀랍습니다. 슬프게도 힘을 추구하니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가 단절되고 깨졌습니다.

<두 개의 아이러니>

인간의 아이러니는 자기가 힘을 얻어 하나님처럼 힘을 행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데, 결국 싸움과 분열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노릇하시지 않고 모든 힘을 포기하셨는데, 그 삶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사탄의 거짓을 무력화하셨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조차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심으로써 이기신 것입니다. 파워를 추구하시지 않으니까, 서로 이어주고, 화목시켜 주시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조차 당신을 따르게 조정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이 가야할 길을 걸으며 보이셨고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기심에 동참하려면 자기 힘을 내려놓고 상대가 내 말을 들어 따라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3] 힘의 추구: 불통

<인간 간의 불통>

대화가 안 통하는 수준 이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총체적 문제입니다. 불통이 **적대적 차원으로** 나타나면 싸움과 분열과 와해입니다. 이 중심에는 돈과 힘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는 이기심이 들어 있습니다(가족 지간에도). 그리고 **부정적 차원에서는** 관계가 유지되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감능력의 상실입니다. 힘을 추구/확보하려는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끼리도 소통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분열입니다.

<인간과 피조물 간 불통>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성구 하나를 보겠습니다.

롬 8:19-23

19 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 이유는,)

21 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 때문.

22 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23 절, 우리도 탄식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피조물과 인간은 본래 인간의 영광의 자유 안에서 인간과 함께 누림을 위해서입니다. 인간과 피조물은 완벽하게 서로 함께 통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피조계와 깨진 상태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불통>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만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속에서 따지고, 어떤 사람은 냉담하게 타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한 유대인의 일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담함으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을 떠난 한 유대인이 어느 날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마음이 변했느냐?” 물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외로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이 누구와 더불어 버림받고 계시는가를 보라. 그분이 안쓰러웠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분은 만물의 주시니까 다 가지셨고, 능력의 주시니까 세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해석입니다. 오히려 만물의 주이시므로 다 내어 주셨고(롬 8:32),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파위를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십자가).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더 아파하십니다. 눅 15 장 탕자 비유 속에서 두 아들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참 소통은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아버지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탄의 거짓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아با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참 소통과 화목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 또는 지금까지의 삶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담대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담대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이기신 세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3. 교회에서 종종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약하다 하나, 진정으로 강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정답을 내려하지 말고 각자가 약함 속에서 강함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나누어 보십시오.